

# 완성차업계, 위기극복 '한 뜻'

## 중견 3社 임단협 속속 마무리

(KG모빌리티·한국지엠·르노코리아)

**KGM 15년 연상 무분규 타결**  
**한국GM 2차 잠정합의안 도출**  
**르노코리아 노사협상 불투명**

올해 신차를 발표하며 점유율 회복에 나서고 있는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GM가 15년 연속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 지었으며 계속된 부분과업으로 생산차질을 빚던 한국지엠도 2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중견 3사중 가장먼저 임금협상을 타결한 KGM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금협상 찬반투표에서 56.2%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KGM 노사는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장시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 생존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노사간 의견을 함께하며 15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 생산 장려금(PI) 250만원 및 이익 분배금(PS) 100만원이다.

KGM은 올 하반기 출시한 액티언으

로 실적 개선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레인지로버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액티언은 3300만원대에서 시작해 최상위 트림도 3800만원대로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사전 예약 5만8000여대, 본계약 1만3000여대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만큼 이번 임단협 합의를 통한 소비자 신뢰와 생산성 확대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로 한국 자동차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한국GM도 지난달 30일 2번째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GM 노사는 앞서 지난 7월 26일 한 차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한국GM은 노조의 부분과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어왔는데, 2차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것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추석 귀성 여비 100만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이 담겼다. 노조는

9월 3~4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한국GM은 이를 토대로 생산 물량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올 상반기 한국 수출차 판매 1위, 트레일블레이저는 판매 2위인 차종이다. 특히 이번 임단협 갈등에 따른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은 3만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4년 만에 신차를 출시하며 실적 회복을 노리고 있는 르노코리아 노사는 여전히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최근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노사간 갈등에 따른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번 달 초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하는 르노코리아의 신차 중형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랑 콜레오스는 뛰어난 상품성을 앞세워 사전 계약에서 1만 3000대를 기록했지만 생산 지연으로 인도가 늦춰질 경우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전자, 中 히트펌프 연구 인프라 확보

하얼빈대 등 연구 컨소시엄 협약

LG전자가 북미, 유럽에 이어 중국과 차세대 히트펌프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냉난방공조(HVAC)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다.

LG전자는 지난달 31일 중국 하얼빈 공업대에서 후한에서 고성능을 구현하는 히트펌프 기술 확보를 위한 '중국 첨단 히트펌프 연구 컨소시엄' 협약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LG전자와 하얼빈 공업대학교, 상해 교통대학교, 시안 교통대학교의 HVAC 기술 핵심 연구진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중국 하얼빈과 모허(漠河)에 새로운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강력한 성능과 신뢰할 수 있는 HVAC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혹독한 겨울 환경으로 유명한 하얼빈과 최대 영하 50도를 기록한 바 있는 중국 최북단 모허는 한랭지에서 높은 효율 유지가 필수인 히트펌프 기술 연구·발전이 이상적인 환경이다. 중국 첨단 히트펌프 연구 컨소시엄은 주거용 에어컨을 포함한 LG전자 HVAC 주요 제품을 테스트하며 극한의 환경에서 난방 성능, 에너지효율 등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LG전자 공기 열원 히트펌프 '써마브이 R290 모노블럭' /LG전자

지난해 11월 미국 알래스카와 지난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 이어 중국 하얼빈에 세번째 히트펌프 컨소시엄을 구축한 것이다. 이로써 LG전자는 북미, 유럽에 이어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별 기후 특성과 주택 구조 등 환경을 고려한 차세대 히트펌프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보했다.

LG전자는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지역 맞춤형 냉난방 솔루션을 앞세워 HVAC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히트펌프는 글로벌 전기화, 친환경 트렌드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LG전자는 연구개발부터 판매와 유지·보수까지 이르는 전 단계를 현지에서 수행한다. 한국, 북미, 유럽, 인도에는 5개의 에어솔루션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산업계 추석맞이 상생경영

## 삼성, 이재용 회장 '동행철학' 강화

8700억 대금 연휴 이전 지급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 운영

삼성이 추석 명절을 맞아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임직원 대상의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등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삼성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이재용 삼성회장 회장의 동행 철학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은 추석 명절에 앞서 협력회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8700억원의 물품 대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조



삼성 직원들이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모습. /뉴시스

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물품 대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웰스토리, 제일기획 등 12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회사별로 당초 지급일에 비해 최대 15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를 연다. 관계사 자매마를 특산품과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생산 제품 등의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현대차그룹, 납품대금 2.4조 조기 지급

6000개사 대상... "상생협력 지속"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소외 이웃 지원 등 상생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둔 협력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2조 3843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

기업은 현대차그룹 소속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오일뱅크·현대위아·현대트랜시스에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약 6000개사다. 2조 3843억원 규모 납품대금 지급일을 최대 14일 앞당김으로써 직원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대차그룹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약 25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국산 농수산물 소비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 외에도 현대차그룹 14개 그룹사 임직원들은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상품권, 농수산물 꾸러미 등 추석 맞이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브루어 키트' 선포

6일 'IFA 2024' 공개 예정

삼성전자가 오는 6일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24'에서 비스포크 정수기 전용 '브루어 키트(Brewer Kit)'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커피 시장의 성장과 집에서 직접 만든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 니즈에 맞춰 비스포크 정수기를 활용한 드립 커피 제조 키트를 선보인다.

비스포크 정수기의 기존 코크를 제거하고 브루어 키트를 장착하면 물이 여러 갈래로 흘러나와 손쉽게 일정한 맛의 커피를 내릴 수 있다.

또 커피 추출에 필요한 물 끓이기부터 뜸 들이기, 물 붓기까지 비스포크 정수기 한 대로 가능해 공간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스포크 커피 정수기는 ▲기본 6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24'에서 공개되는 비스포크 정수기 전용 '브루어 키트(Brewer Kit)' 모습. /삼성전자

지 추출 레시피 ▲'스마트싱스(Smart Things)' 앱에서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설정된 레시피 ▲커피 브랜드와 협업한 최적의 레시피를 제공해 소비자 맞춤형 커피를 만들 수 있다.

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에코프로그룹, 임직원 대상 RSU 지급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연봉 15~20% 수준 책정

에코프로그룹이 회사성장의 과실을 임직원들과 나눈다.

에코프로그룹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RSU(Restricted Stock Units)을 오는 10월 처음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2022년 9월 재직 기준 총 2706명으로 지급 주식수는 총 25만 4913주다. 이 가운데 절반인 12만 7456주가 오는 10월 지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10월에 지급된다.

지급되는 주식 수는 직급과 근속연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시 연봉의 15~20% 수준으로 책정됐다.

회사는 RSU 지급을 통해 에코프로그룹은 임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눠준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임직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RSU 지급을 계기로 캐즘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